



1993  
2  
성도의 빛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빛 2 1993



## - 표지 설명 -

감리 교회 목사였으며 피지 원주민인 칼라베티 투부 형제는 1975년 버스에서 어떤 여성으로부터 처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1984년 아내인 루이사가 그의 침례에 동의할 때까지 꾸준히 복음을 공부하였다. 이제 그들 부부와 자녀들은 피지 제도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집 밖에서 사진을 찍은 투부 형제는 술루를 입고 있으며 투부 자매는 피지의 타파천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양을 넣어 짠 옷을 입고 있다.  
 셸린 마이크 손더즈 촬영  
 "신앙의 섬 피지", 32쪽 참조

## - 어린이란 표지 -

프라돌 라사카는 피지에 살고 있는 말일성도 어린이이다.  
 셸린 마이크 손더즈 촬영

##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예수께서 걸으신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
브리감 영과 사회적 책임 아더 알 배릿 .....	10
가족 앨범 : 사진으로 보는 이야기 .....	18
피지 : 신앙의 섬 셸린 마이크 손더즈 .....	32
폰차이 준트라티프 : 영적으로 준비됨 데이비드 미첼 .....	42
배우자의 행복 멜빈 엘 푸르이트 .....	46

## 청 소 년 란

그림책 간증 말리 소우변송 .....	8
숨겨진 고민 리사 에이 존슨 .....	26
성스런 대지에 서서 그레고리 엔시나 빌리코프 .....	30

##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	1
방문 교육 메시지 : 주님을 매일 찾음 .....	25
교회 및 지역 소식 .....	65

## 어 린 이 란

물문경 이야기 : 앰몬아이하에서의 엘마의 선교사업 .....	50
심심풀이 .....	53
함께 나누는 시간 :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디 에드워즈 .....	54
안전하고 확실한 길 비키 앤더슨과 로랄리 월키 .....	56
친구가 친구에게 엘 라이오넬 캔드릭 장로 .....	60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개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테프트 벤슨, 고든 비 형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23권, 제30권, 제2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3년 2월 1일 (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한 상 익  
발행소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삼일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 1992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398232  
Printed in Korea 2/93

마음에 감동을 받음

저는 12년 전에 교회를 알았으며 선교사들이 물론경에 대해 하신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후 1년 이상을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진실로 세이또노 미찌(일본어)와 물론경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를 받았으며 병을 앓는 시련의 기간 동안에도 성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병이 완쾌되었으며, 건강이 회복된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이꼬 나카야마  
기찌요이 와드, 동경 스테이크  
일본 동경

예언자들의 사진

리아호나(포르투갈어)에 훌륭한 사진과 기사들을 실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잡지는 언제나 영감을 줍니다.

저희 가족은 가정의 밤 시간에 리아호나에 있는 사진들을 활용합니다. 과거의 교회 대관장님들의 사진을 더 많이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님들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으며, 그분들의 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타일로 삼웨이스  
사옹파울로 북 스테이크  
브라질 사옹파울로

편집자 노트 : 1992년 12월호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전기를 필두로 말일의 예언자들의 전기를 연속으로 실어 드릴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10쪽에 브리감 영 대관장님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을 열어 줌

저는 언제나 복음대로 생활하는 회원들의 모범을 전해주는 리아호나(스페인어)를 통해 간증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에서 배운 것들을 생활에서나 일을 할 때나 교회에서 공과를 가르칠 때 응용합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소개시켜 줄 때에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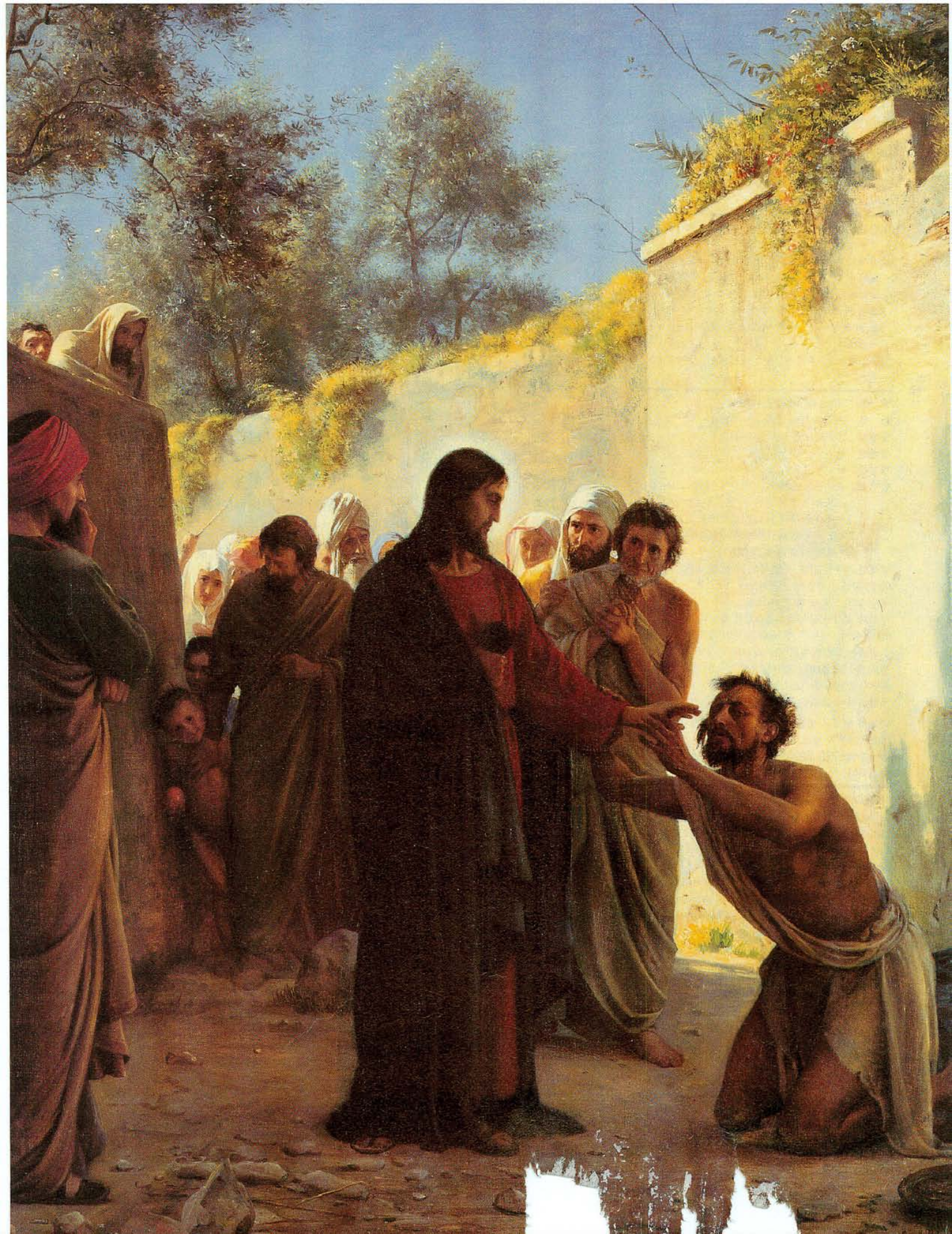
매월 "몰론 메시지"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몰론 메시지를 떼어내서 학교 게시판에 붙여 놓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토론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은 교수님들과 학우들도 이 메시지를 읽게 되었으며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관심 있게 되었습니다.

맥스 사바리아  
팜 스프링스 와드  
캘리포니아 팜 스프링스 스테이크

편집 노트

애독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편지를 참으로 기쁘게 받아 보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사를 보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빛 담당자 앞







# 예수께서 걸으신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12 월 어느 추운 날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던 헤롤드 비리 대관장님의 장례식에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솔트레이크의 태버네클에 모였습니다. 예언자로서 주시던 말씀과 강력한 지도력과 헌신적인 봉사를 보이신 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함을 누리게 되도록 소망을 가지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다음날 솔트레이크 성전의 맨 위의 성스러운 방에서 그분의 후계자가 선택되어 지지되었고 성스러운 직분에 성별되었습니다. 일에 지칠 줄 모르고, 항상 겸손하며, 영감에 찬 간증을 지니고 계시던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께서서는 리 대관장님이 결정하신 길을 계속 따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 분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주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권세를 가지고 그와 똑같은 권고를 주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그분의 영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는 가운데 이 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을 수 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왕국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이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꾸짖으셨다. (마태복음 4 : 8~10 참조)

어느날 저녁에 저는 며칠 전에 집에 배달된 여행 안내 책자를 무심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현란한 색깔과 매혹적이며 사람을 유혹하는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협곡과 스위스의 알프스 관광 안내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기독교의 발생지인 성지 베들레헴에 초청하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자의 마지막 구절에는 간단하나 강력한 힘을 지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실려 있었습니다. “와서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어 보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영을 마음속에 지니며, 주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주님이 걸으셨던 것과 같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께 대한 불변의 믿음과 타인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걷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수께서는 낙담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을 보고 슬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3 : 34)

예수님은 유혹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막강한 힘과 유혹이 넘치는 궤변을 구사하는 악마는 주야로 사십 일을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유혹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다시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탄이 다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라고 하자 구세주께서는 “사단이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 : 2~10 참조) 예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누가복음 22 : 42, 44)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으신 고통을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 : 28, 30)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권세를 오용했기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두 유혹의 길도 걷게 될 것입니다. “악마가 인간의 자녀를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악마의 유혹이 없으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나니...”(교리와 성약 29 : 39)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의 길도 걸을 것입니다. 쉽게 하늘 나라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도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후에 하늘 나라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구세주 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슬픔을 안겨다 주는 길을 걷게 되는 반면에 영원한 기쁨을 낳아 주는 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히브리서 5 : 8)합니다.





서탄아 물러가라, 칼 하인리히 볼로호 작, 원화는 덴마크 프리드릭스보호 성의 예배당에 보관, 프리드릭스보호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함.

통해서 우리가 모두 자신을 발전시키고  
완전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가르치셨으며, 주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의 여정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해야 하는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 : 2)

둘째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 : 42)

세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 : 34)

우리는 기도의 길을 걸음으로써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으신 이러한 길을 걷겠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자와  
선견자와 계시자들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걷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걸으신 길이므로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수년전 스펠서 더블류 킴볼 장로님을 처음 뵈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킴볼 장로님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셨으며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젊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전화가 울려 수화기를  
들자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저는 스펠서  
더블류 킴볼 장로입니다. 특별히 부탁이 있어서

우리는 사무엘이 준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사무엘상 15 : 22). 불순종의 결과는  
구속과 죽음이며, 순종의 보상은 자유와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봉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성역을 베푸시던 예수님의 생애는 선을 비취  
주는 탐조등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은 절름발이의 다리에  
힘을 주셨으며, 장님에게 광명을 주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누가복음 10 : 27)고 하셨으며,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친절히 태도로 대하여 사랑에 가득찬  
이해심을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또한 달란트의 비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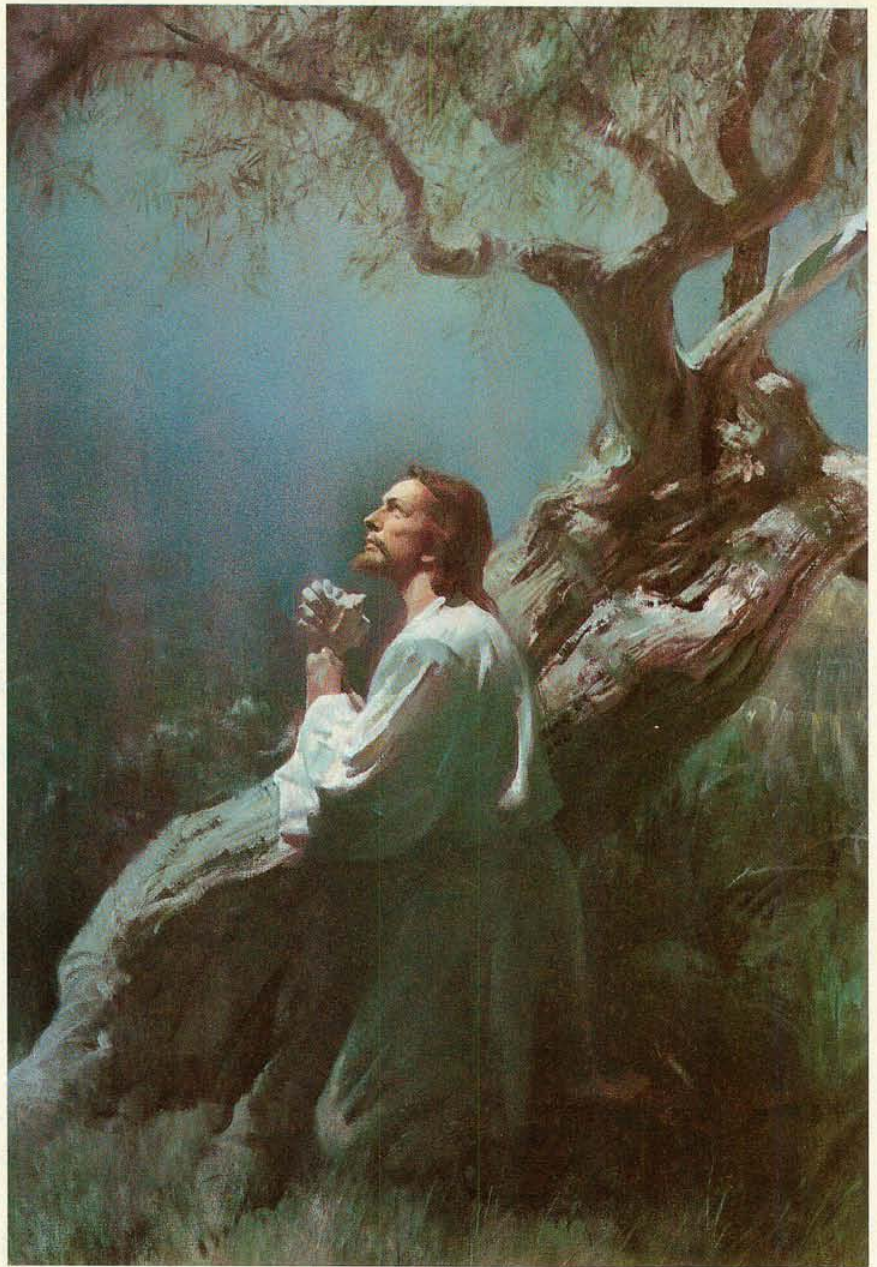


전화했습니다. 감독님의 와드에서 5번지 옆 큰 건물 뒤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작은 집에 살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분은 나바호 인디안인 마가렛트 버드 자매인데, 감독님과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그녀를 찾아 보시고 우정의 손길을 뻗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잊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렛트 버드 자매는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고난속에 빠져있던 미망인이 교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인간애가 넘치는 이 짧은 드라마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한 걸음 향상된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목자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하나의 값진 영혼을 찾아 간 사도였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걸을 때 우리 모두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세주께서 내민 손을 꼭 잡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름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때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성취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분은 명령을 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현명한 자건 어리석은 자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몸소 수고하시고 악과 맞서 싸우시며 고난을 겪으시는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여



갯세마네의 그리스도, 해리 앤더슨 작

주십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나 목수의 아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위대한 교사 이상의 품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상을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짓거나 군대를 이끄시지도 않았습디다. 그분은 왕관을 쓰셨거나 홀을 드셨거나 왕의 옷을 입으시지도 않았습디다. 그러나 그분은 끝없는 용서와 무한한 인내, 한없는 용기를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습관, 의견, 야심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의 기질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분의 권세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성격과 인품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선임 사도인 베드로로 더 잘 알려진 어부였던 시몬을 생각해 봅시다. 의심이 많고 성격이 성급하며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 가던 밤을 생각하며 비통에 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친”(마가복음 14 : 65) 밤이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약했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더라”(마가복음 14 : 54) 베드로가 구세주를 세 번 부인하여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한 날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 속에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침묵을 지키시다가 베드로를 쳐다 보셨습니다.

어느 역사가는 베드로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베드로는 더 이상의 위험을 몰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새벽이 밝기를 바라며 밤을 맞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회오에 젖은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며, 그 순간 그의 과거의 삶, 수치, 약점, 자아가 슬픔과 함께 죽어 갔고 그는 새롭고 고상한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었다.”(후레데릭 더블류 파라, *예수의 생애*, 오래된 포틀랜드 : 파운틴 출판사, 1964년 604쪽)

또한 다소 사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의 경전 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주옥같은 내용이 발견된 랍비 학문에 정통해 있던 학자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기록이 바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로마서 7 : 24). 그러던 어느날 그는 예수를 만났으며, 모든 것이

새로와졌습니다.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바울은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 : 22, 24)로 사람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구세주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오라”(요한복음 11 : 43)고 말하고 계십니다. 의심에서 비롯되는 낙담에서 나오십시오.

죄의 슬픔에서 나오십시오. 불안양이라는 사망에서 나오십시오. 새로운 삶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으면서 구세주께서 주신 간증을 기억합시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파이삼서 11 : 10~11)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교리와 성약 110 : 4)

이상의 간증에 저의 것을 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

1.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그분의 영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생을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다.
2.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을 지닐 수 있다.
3. 우리는 실망과 유혹과 고통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4.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 그림책 간증

말리 소우변쑹

**라** 오스의 한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성장한 저는 소녀 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나 기독교에 관해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소요로 인해 가족들이 고국을 떠나 결국은 미국에 정착함에 따라, 저는 이곳에서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참된 교회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6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990년 11월 26일 일요일, 저는 매사추세츠주의 린필드에 있는 아시아인 지부에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열 한 살된 소녀와 여섯 살된 그 소녀의 남동생이 앉아있었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그들을 보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는 저를 보며 “왜 예수님 모습이 이래요?”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셔서 그래.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셨지.”

저는 한 어린이의 책과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저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소녀가 “왜죠?”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녀에게 읽어줄테니 그 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릎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읽어나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설명도 곁들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그림을 보고 미안해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림을 보면서 매우 즐거워 했습니다.

저는 책에 나온 이야기에다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 곁들여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자 그 아이들은 마치

학교에서 발표하려고 할 때처럼 열린 손을 들고 서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린 소녀는 저를 보고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럼, 이 이야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저는 머리를 끄덕이는 동안에 그 이야기가 틀림없는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참되다고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해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성신이 저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신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못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파스한 느낌, 평화로움, 사랑 같은 것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 브리감 영과

## 사회적 책임

아더 알 배릿

**인** 생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이러한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결코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브리감 영은 후자인 경우였다. 31세의 나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온 그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였으며 그 가능성을 굳게 확신했다. 그에게는 그 왕국이 결코 환상적인 꿈이 아니었으며 가능성 있는 실체로서 새로운 생활 양식이자 새로운 사회 형태였다.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예레미야 20:9)도록 그는 이러한 이상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알게 된 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모든 것이 예비될 때까지 요셉이 시작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계속 추진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일성도의 사업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유일한 사업입니다.**”(설교집, 3:51)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 “사업”은 브리감 영의 목표와 인생에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주었다.

브리감 영처럼 그러한 목표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그 목적이 뚜렷하며, 특히 그 목적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서 그는 뉴욕주 맨덴에서 하던 목수 생활을 그만 두고 그 땅의 반대편에 있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계곡에 자신의 집과 교회 본부를 세울 때까지 한번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1832년 이른 봄, 눈이 내리는 가운데 침례받은 브리감 영은 물가에서 확인받고 옷이 마르기도 전에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그의

집에서 장로로 성임되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나기도 전에—그 해는 그의 첫번째 아내가 사망했으며, 그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처음 만난 중요한 해였다.—브리감 영은 다시 눈 내리는 계절을 이번에는 자신이 새로 찾은 인생관을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다. 12월 어느 추운 겨울 날, 브리감 영과 그의 형제 요셉은 캐나다 상부에 위치한 킹스톤을 향해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 이 두 명의 젊은 장로는 무릎까지 눈에 빠지는 데다 눈 밑에는 진흙이 두껍게 깔린 길을 400킬로미터 이상 걸어야 했다. 아래에는 진흙이 깔린 눈발 길을 헤치고 걸어본 사람만이 이 두 젊은 선교사가 겪었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설상 가상으로, 그들은 거의 10킬로미터는 빙판 길을 걸어야 했으며, 얼음 두께가 얇아서 그들이 신은 신발 안으로 “절반 깊이”까지 물이 스며 들어왔다.

두 달 동안 그 선교사들은 그

**위: 브리감 영의 이 사진은 1851년, 그의 50주년 생일을 맞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의 또 한 장의 사진은 그가 75세 되던 1876년도에 촬영되었다.**









위: 브리감의 옷장 일부—그가 영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지, 실크 모자, 양가죽 구두 및 지팡이, 오른쪽: 요셉 스미스는 브리감이 성도들을 미주리주 폭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1,600킬로미터를 행진하다 콜레라에 걸린 병자들을 돌보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봉사했다고 기록했다.



로버트 더비슨 그림, 제트 라이브스, 콜레라, 폭도, 미주리주 폭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1,600킬로미터를 행진하다



위: 브리감의 가구 선반, 왼쪽: 브리감이 짓는 데 도움을 준 뉴욕주 슈거힐에 있는 한 농가의 장식용 대문. 창문은 통해서 브리감 영이 기술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서 노력한 결과 45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교 사업이 브리감 영에게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언어 구사가 서투르다”고 생각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력이 강했으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설교집, 5:97)

세월이 흘러 또 한번 선교 사업을 다녀온 후 브리감 영은 마침내 가족과 함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가 두번째 선교 사업 때 노력한 결과 20명이 더 왕국에 들어왔으며, 그는 후에 성도들을 서부로 인도하듯이 그들을 커틀랜드로 인도하였다. 오하이오주 북부의 조용한 마을인 커틀랜드에 정착한 브리감 영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하는 곳인 시온에 관해 배우게 되었다.

브리감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한 큰 희생을 시온 진영의 행군 대열에서 요셉 스미스를 동반했던 1834년에 다시 한번 치르게 되었다. 미주리주에 있는 성도들이 폭도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커틀랜드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 호소가 전해졌으며

요셉과 그밖의 205명은 도움을 구하는 이 간청에 응답했다.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과 맞서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1,600킬로미터 떨어진 대륙 반대편에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리감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장거리 도보 여행에 익숙하였지만 이와 같은 행진은 처음이었다. 영 대관장은 후에 그가 선교사 시절 발에서 피가 나도록 여러 달 동안 걷고 또 걸은 것에 관해 말했지만 그런 선교 사업조차 초여름의 더위 아래 매일 계속되는 이 행진의 고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극도로 피곤에 지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내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 마침내 무서운 콜레라가 덮쳐와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다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2년전 북아메리카에서는 콜레라가 크게 만연하였으며 그 증상은 잘 알려졌는데 즉 설사를 하고 간헐적으로 구토하며 고통스런 경련을 일으키는 데다 탈수증을 일으켜 얼굴이 창백해지고 수척해지며, 손발이 차갑고 거무스름해지고 수축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하루, 아니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자가 속출하였으며 때때로 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 도끼에 맞은 듯이 졸도하여 쓰러지기도 했다. 시온 진영의 일부 회원들은 도망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브리감 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요셉 스미스는 브리감이 병자를 돌보고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일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다.

시온 진영에서 지낸지 오래지 않아 브리감 영은 1835년에 조직된, 현대의 첫번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새로운 부름으로 인해 브리감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책임이 무겁게 늘어남을 느꼈다. 그러나 요셉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여 만물이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겠다는 그의 인생 목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브리감 영이 사도일 당시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끊임없이 헌신했는가를 알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1839년에 시작되었다.

첫번째 사건은 2월에 발생했다. 당시 요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브리감 영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교회를 관장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문제는 성도들을 미주리주에서 일리노이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주할 준비를 잘 갖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으며, 성급히 떠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려는 유혹도 커졌다. 그러나 브리감 영이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취할 수 있는 합당한 행동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사랑과 동정 및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배우지 못하면 분명히 사회는



지역에서 노력한 결과 45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교 사업이 브리감 영에게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언어 구사가 서투르다”고 생각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력이 강했으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설교집, 5:97)

세월이 흘러 또 한번 선교 사업을 다녀온 후 브리감 영은 마침내 가족과 함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가 두번째 선교 사업 때 노력한 결과 20명이 더 왕국에 들어왔으며, 그는 후에 성도들을 서부로 인도하듯이 그들을 커틀랜드로 인도하였다. 오하이오주 북부의 조용한 마을인 커틀랜드에 정착한 브리감 영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하는 곳인 시온에 관해 배우게 되었다.

브리감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한 큰 희생을 시온 진영의 행군 대열에서 요셉 스미스를 동반했던 1834년에 다시 한번 치르게 되었다.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이 폭도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커틀랜드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 호소가 전해졌으며

요셉과 그밖의 205명은 도움을 구하는 이 간청에 응답했다.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과 맞서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1,600킬로미터 떨어진 대륙 반대편에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리감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장거리 도보 여행에 익숙하였지만 이와 같은 행진은 처음이었다. 영 대관장은 후에 그가 선교사 시절 발에서 피가 나도록 여러 달 동안 걷고 또 걸은 것에 관해 말했지만 그런 선교 사업조차 초여름의 더위 아래 매일 계속되는 이 행진의 고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극도로 피곤에 지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내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 마침내 무서운 콜레라가 덮쳐와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다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2년전 북아메리카에서는 콜레라가 크게 만연하였으며 그 증상은 잘 알려졌는데 즉 설사를 하고 간헐적으로 구토하며 고통스런 경련을 일으키는 데다 탈수증을 일으켜 얼굴이 창백해지고 수척해지며, 손발이 차갑고 거무스름해지고 수축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하루, 아니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자가 속출하였으며 때때로 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 도끼에 맞은 듯이 졸도하여 쓰러지기도 했다. 시온 진영의 일부 회원들은 도망가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브리감 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요셉 스미스는 브리감이 병자를 돌보고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일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다.

시온 진영에서 지낸지 오래지 않아 브리감 영은 1835년에 조직된, 현대의 첫번째 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새로운 부름으로 인해 브리감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책임이 무겁게 늘어남을 느꼈다. 그러나 요셉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여 만물이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겠다는 그의 인생 목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브리감 영이 사도일 당시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끊임없이 헌신했는가를 알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1839년에 시작되었다.

첫번째 사건은 2월에 발생했다. 당시 요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브리감 영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교회를 관장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문제는 성도들을 미주리주에서 일리노이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주할 준비를 잘 갖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으며, 성급히 떠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려는 유혹도 커졌다. 그러나 브리감 영이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취할 수 있는 합당한 행동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사랑과 동정 및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배우지 못하면 분명히 사회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브리감 영은 생각했다.

따라서 한 모임이 소집되어 서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에 서명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떠나겠다는 것이었다. 브리감 영과 그의 가족은 히버 시 킴볼 가족과 함께(킴볼 장로는 미주리주에 남아 있었다.) 추운 2월에 포장마차를 끌고 일리노이주를 향해 나아갔다. 이것은 물론 모든 이주 경험 중 가장 기묘한 행진 가운데 하나였다.

얼어 붙은 미주리 평원을 32킬로미터 정도 나아간 후, 브리감은 멈춰서 그의 아내와 다섯 자녀들이 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고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헐벗고 굶주리는 성도들을 마차에 태우고 짐을 실어 그의 가족에게 돌아왔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여행할 거리의 세 배나 되는 거리를 여행했다. 그 여행이 끝난 후 종착지인 일리노이주 퀸시에서 한 감동적인 모임이 열렸다. 퀸시에 온 성도들은 파웨스트에 아직도 50가구가 남아있으며 너무 빈곤하여 떠날 처지가 못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단결하여 그들이 갖고 있던 모자, 옷, 신발 등을 내놓아 가난한 성도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기금을 모았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빵을 떼어 성찬을 취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기 전에 50달러가 현금으로 모아졌으며, 그

가난한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 데 쓰이도록 소나 말이 제공되었습니다. 가족을 제공한 사람 중에는 헨즈밀 학살 사건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워렌 스미스 자매님도 있었는데 그분은 이 자선 사업에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경험을 통해 브리감 영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함께 단합될 수 있으며,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기반을 둔 기독교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

같은 해에 있었던 두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브리감 영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1839년 9월부터 1840년 2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그의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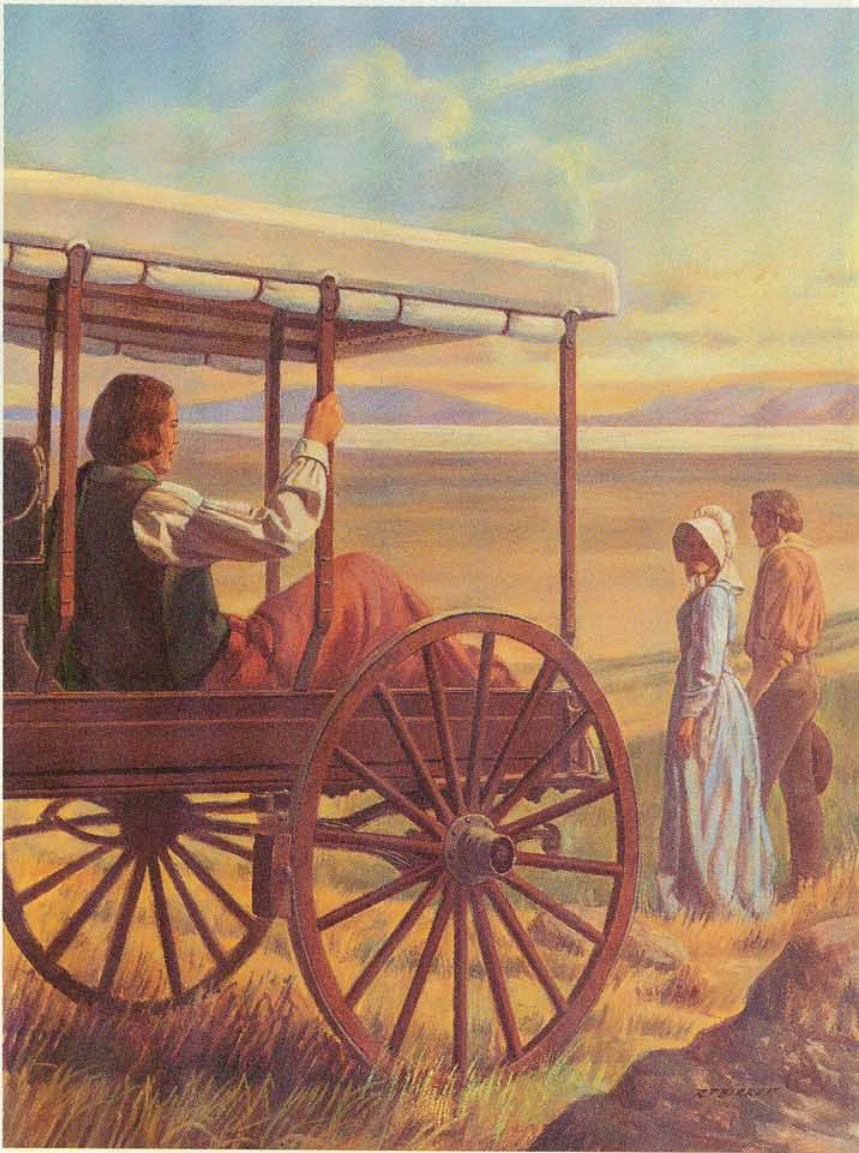
우리의 관심은 그가 뉴욕으로 여행할 시기로 모아진다. 십이사도들이 특별한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나야 할 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브리감 영은 주위의 많은 형제들처럼 말라리아로 보이는 병에 걸려 있었다. 몸 전체가 앓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그는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 아이오와주 몬트로즈에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옷을 입었다. 그는 외투가 없었으므로 요람에 있는 이불을 꺼내 몸에 돌렸다. 그의 자녀가 모두 발열 증세로 앓아 누워 있었고 그의 아내도 병이 걸려 태어난 지 열흘된 아기와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미시시피강이 겨우 150미터 거리에 있었으나 브리감은 그 강둑까지도 걸을 수 없었다. 한 이웃 사람이 마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영 대관장은 그 안으로 기어들어 갔다. 누군가 강가에서 그를 마중나왔으며 강을 건너 후 이스라엘 바로우가 그를 말에 태워 나무에 있는 히버 시 킴볼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쓰러진 채 4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었으며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동쪽으로 이동했다. 브리감 영은 마차 뒤에 탔다. 감기가 걸려서 불편함을 느껴본 사람은 그가 병든 몸으로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 사이를 횡단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 잘 이해할 것이다. 녀달 후, 브리감은 마침내 뉴욕시에 건강한 몸으로 도착했으나 고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나룻배를 타다가 그는 넘어져 커다란 철 고리에 부딪쳐 왼쪽 어깨 뼈가 탈골되었다. 주위에 있던 두 형제가 그를 갑판에 강하게 밀어 붙인 후 팔리 피 프랫은 브리감의 옆구리에 발을 대고 그의 손을 붙들고 강하게 끌어 당겼다. 이 시련은 참기 힘든 것이었지만 영 장로는 오른팔로 뼈 교정을 도왔으며, 그 직후 의식을 잃고 며칠 동안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역경에 어떤 사람들은 낙담하여 일찌감치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브리감 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관계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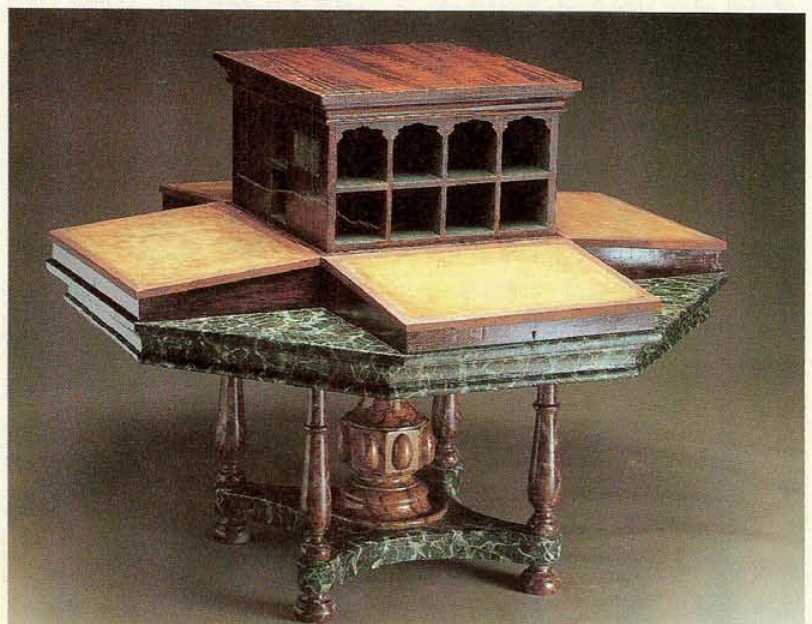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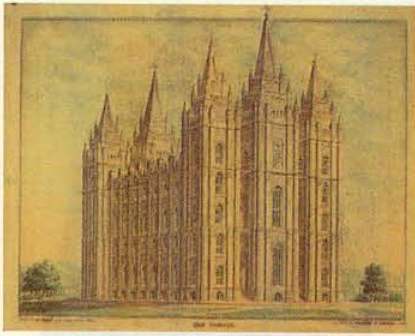
위 : 브리검이 평원을 횡단할 때 사용했던 어깨 망토와 망원경.  
 왼쪽 : 병에서 회복한 브리검은 솔트레이크 계곡을 윌포드 우드럼의 마차 뒷칸에서 처음 보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충분하다.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위 : 브리검이 선물로 받은 금 지팡이의 조각된 머릿부분. 오른쪽 : 브리검의 설계에 따라 제작된 4면 책상. 그것은 종종 그와 그의 보좌들이 사용했다.







위 : 윌리엄 워드가 그린 이 솔트레이크 성전의 그림은 20년 이상 영 대관장의 사무실에 걸려 있었다. 오른쪽 : 영 대관장이 살았으며 그의 사무실이 있었던 비하이브 하우스.



일이라면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배를 탔으며 영국으로 가는 도중 계속 배 멀미를 했다. 마침내 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너무나 수척한 모습이어서 그의 사촌인 윌라드 리차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영국에서 여러 달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한 후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희생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온 영장로는 다음과 같은 칭찬의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형제 브리감 영이여, 진실로 이같이 주께서 그대에게 이르노라. 나의 종 브리감이여, 이제는 지난 날과 같이 네 가족을 떠나 있기를 네게 요구하지 아니하노니, 네 헌물을 받아들였음이니라.

“나는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여행하는 동안 힘써 일하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음을 보아왔노라.

“그러므로 나는 네게 명하노니, 나의 말을 널리 전파하며 이제부터는 이후 언제까지나 영원히 네 가족을 특별히 돌볼지이다. 아멘.”(교리와 성약 126 : 1~3)

이렇게 브리감 영은 예언자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 브리감 영은 성도들을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했다. 1847년, 46세의 나이에 그는 교회의 제2대 대관장으로 지명받았다. 그의 지도력 하에 말일성도들은 사막을 장미가 만개하듯 번성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넓은 황야를 개간하고, 마을과 도시를 세웠으며, 집과 예배당과 성전을 짓고, 땅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수확했으며, 공장과 상가 및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쳤으며 선교사들을 머나먼 곳으로 보내었다.

한번 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브리감 영은 하나님의 왕국인 이 시온을 지상에 세우기 위해 글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제단에 기꺼이 바쳤다. 인생에서 그 목표 외에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그는 그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었다. 이러한 태도를 지녔으므로 그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이상적인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일에 선택하실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은 완전한 것이었다. 주님의 예언자로서 그는 만년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시온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나 예복과 그의 백성들이 와서 시온을 세워주시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시온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밀밭을 가꾸며 집을 짓고 농장을 돌보고 포도밭과 과수원을 가꾸고 육신을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생산하며,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지상에 시온을 세우며 그것을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나와



# 브리감 영의 생애

우리가 권세를 지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경작하는 토양과 우리가 짓고 있는 집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합시다. 만일 우리가 부패된 것에서 손을 떼고 우리 마음과 우리 집과 도시와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시온을 세운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 대신 이 땅이 더욱 기름지며 아름답게 되고 음식물로도 유용한 모든 작물이 대지에서 생산될 것입니다.”(설교집, 9 : 284)

요약하면, 브리감 영의 공동 사회 건설 계획은 단지 도시나 과수원의 건설이 아니었으며, 천사가 거하기에 합당한 지상의 천국을 세우는 것이었다. 교육과 음악 및 문화 예술이 매우 큰 역할을 맡았으며, 브리감은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시온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어 그들이 와 보고 우리 모범을 배우기를 기대했다.

그의 꿈은 여러 면에서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브리감 영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기를 바란다. “바로 여기에, 우리 와드, 우리 지부에 있습니다.” □

## 브리감 영의 생애, 1801~1877

연도	나이	사건
1801년	—	6월 1일 : 버몬트주 위팅검에서 출생
1815년	14세	모친 별세 ; 생계비를 벌기 시작하여 마침내 목수가 됨.
1824년	23세	10월 5일 : 미리엄 위크스와 결혼
1832년	31세	침례받음 ; 장로로 성임됨. 아내 사망. 요셉 스미스를 만남 ; 미국과 캐나다에서 단기간 선교 사업을 수행함.
1834년	33세	2월 18일 : 매리 앤 앤젤과 결혼.
	33세	5~6월 ; 시온 진영의 행진시 대장으로 활동함.
1835년	34세	2월 14일 : 현대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성임됨.
1839~41년	38~40세	영국에서 선교 사업.
1844년	43세	6월 27일 : 요셉 스미스 순교. 8월 8일 : 브리감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교회를 인도함.
1846~47년	45~46세	성도들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함.
1847년	46세	1월 14일 : 교리와 성약 136 편의 말씀을 받음.
	46세	7월 24일 : 처음 모집한 성도들과 함께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감. 12월 27일 :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받음.
1850년	49세	6월 15일 : 유타 지역 주지사가 됨.
1853년	52세	4월 6일 : 솔트레이크 성전의 초석을 놓음.
1858년	57세	6월 11일 : 주지사로서 8년 임기후 퇴임함.
1867년	66세	10월 6일 : 새로 지은 솔트레이크 태버넌클에서 첫 번째 연차 대회가 개최됨. 11월 11일 : 본부 주일학교 조직이 설립됨. 12월 8일 : 상호부조회를 재조직함.
1869년	68세	유타에 철도가 부설됨.
		11월 28일 : 본부 청년 조직 만듦
1877년	76세	4월 6일 : 서부 지역에 첫 번째 성전인 세인트 조지 성전을 헌납함. 신권의 합당한 조직을 재강조함.
	76세	8월 29일 :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



# 가족앨범



**18** 45년 어느 봄날 아침에 교회의 십이사도중 한 사람인 윌라드 리차즈와 그의 아내 제네타와 그들의 아들 히버 존은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일리노이주 나부에 있는 루시언 포스터 사진관으로 갔다.

그 당시 사진 촬영은 새로운 발명이었으므로 사진관에 간다는 것은 리차즈 가족에게 매우 즐거운 모험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위에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1년 후 제네타가 갑자기 사망했으므로 윌라드와 히버 존에게 나중에 매우 소중한 것이 되었다.

150여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에 소장된 사진 중 일부로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리차즈 가족의 모습처럼, 모든 사진 뒤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1989년도 사진은 과테말라의 외딴 산간 지역에 사는 말일성도들이 손으로 만든 벽돌로 그들의 예배당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예배당은 그들의 신앙과 헌신과 봉사 및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결실이다.

사진에는 이와 같이 많은 시연들, 즉 과거와 현재의 말일성도들의 삶의 특별한 순간들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한 예로서 실린 사진들은 작은 것이지만 복음이 우리를 전세계에 걸친 같은 교회 회원이면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단합시켜 주는 공통된 경험임을 보여준다. □



사진: 에리히트 로버트













위: 성찬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긴 이 1975년도 사진은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 와드에서 찍은 것이지만 이것은 전세계 어느 와드나 지부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왼쪽: 1990년 프랑스 세르기에서 전도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인 앨버텔리 장로와 처치 장로.

위: 한 아르메니아인 개종자가 1923년 4월 6일 시리아 알레포의 임시 침례탕에서 침례받고 있다. 사진

원본의 뒷면에는 그날 6명이 침례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아래: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갈 수 있는 호수 같은 곳이 종종 "침례탕"이 된다. 이것은 1900년의 이 뉴질랜드 개종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위 : 1990년 영국 런던에 사는 에녹  
콰이가 아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있다.  
콰이 형제는 이전에 가나에서  
추장이었다.



위 : 전세계 말일성도들의 구세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이 가족이 이웃에  
사는 미망인을 방문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나타난다.

아래 : 교회에서 첫번째 주일학교는  
1849년에 조직되었다. 50년후인 1899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제21와드의 이

다국어 반에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및 미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반원들이 모였다.

오른쪽 : 1990년, 타티아나 투루티아  
자매는 그당시 소련의 비보르그에서  
첫번째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위 : 나이지리아 아크와 이봄의 에켓 지부 회원들. 이 사진을 찍은 1985년 당시 지부의 30명 회원들은 건물을 세내어 모임을 갖고 있었다. 예배는 에픽어로 진행되었다.

아래 :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한 아버지와 다른 신권 지도자들이 유아 축복을 하고 있다. □



앤 헬렌 루이스 사진



더그 마틴 사진



## 주님을 매일 찾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축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그분의 사랑에 찬 인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나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엘마서에서 앰올레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의 인도하시는 힘은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앰올레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너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사...

“스스로 겸손하며 쉬지 말고 주께 기도하라.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 원수의 권세를 막아 주시도록 기도하며...

“수확이 풍성하도록 너희 들에 있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 들에 있는 가축이 번성하도록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엘마서 34 : 17, 19~22, 24~26)



로리 앤더슨 펄 그림

여러분은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을 더욱 간절히 구하겠는가?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여러 해 전, 어느 말일성도 소녀가 아버지 목장 밖의 거친 황야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그 소녀는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깨닫고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던 그녀는 마침내 어느 손길이 자신의 어깨에 놓여져 길을 인도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그녀는 좁은 계곡에서 뒤돌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한 느낌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내 계속되었고 집에 와서 대문을 잠글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 소녀는 평생 동안 그녀를 지탱해준 신앙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조그만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생활을 인도하신다는 어떤 개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 주님을 위해 문을 열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요한계시록 3 : 20) 이 성구에 묘사된 문을 그런 유명한 그림을 보면 문고리가 우리가 있는 쪽에만 걸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서 계시지만 우리에게 문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의지할 때 우리는 실제로 문을 열어서 우리 생활에 신앙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잊지 말지니,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교리와 성약 8 : 10)

주님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살펴보시며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두려워 하는 소녀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기도드리며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생활에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힘을 얻게 되는가? □





스티브 빈더슨 사진

웃음띵 미소 뒤에는 피해자의 무서운 짐인 두려움과 죄책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여러분이든지 또는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희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치유가 가능하다.



# 숨겨진 고민

리사 에이 존슨

여러분이 앤드리어\*를 만나면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으며 우호적이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할 줄 안다. 그러나 그녀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둡고 비극적인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많이 울었으며 평상시 침울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누구하고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며 학교를 비롯하여 어느 곳에서도 자신감 없이 행동했다. 앤드리어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던 것이다.

“저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그 일이 너무 역겨운 일이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너무 혐오스럽고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이해심 많은 감독님은 저에게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며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므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어요.”

앤드리어는 전문적이며 영적인

\*진짜 이름이 아님.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써 과거의 고통스런 경험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다.

## 혼자가 아님

불행하게도 그것은 앤드리어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놀랄만큼 많은 수의 성폭행 사건이 매일 보도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회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종족, 종교, 직업, 소득 수준 및 교육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일은 말일성도 가족에게도 일어나는가? 교회내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사실이다. 교회 본부의 지도자들은 성폭행을 당한 회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는다.

정확히 말해 성폭행이란 무엇인가? 성폭행에 대해 정의를 내려 놓은 것을 보면, “한 어린이가 어른이나 또는 신뢰 관계나 힘 등 자신을 지배할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어린이로부터 받는 성적인 자극을 주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어린이

학대 : 중무 지도자 지침[교회 소책자], 1985년, 2쪽)

“[어린이 학대]는 아마도 우리에게 항상 존재해 왔을 것입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처럼 관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욱 많이 발견되는 이런 끔찍한 악에 맞서 대항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아버지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 아이를 학대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근친 상간을 범한 사람은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회원 자격도 지니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를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 대한 대심판의 날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1985년 4월 연차 대회)

일부 교회 회원들의 편지는 성폭행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말해준다. 15세된 린디\*는 이렇게 썼다. “제가 돌보던 아기의 부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주머니에게 집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곤경에 처한 걸 알았습니다. 짐으로 올 때 그는 저를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제가 저지했지만 그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6세된 티파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섯 살이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빠, 언니들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서 그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 저는 할아버지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했으며 그분은 제게 베개를 가져와서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5세된 데이비드\*는 피해자임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를 돌보던 누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당시 그 누나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몇년 후 저는 그것을 깨닫고 매우 역겨웠습니다.”

이런 “역겨운” 느낌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게 된다. 이것을 다루는 일이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중 하나이다.

### 죄 없음 .....

대관장단은 이 문제에 관한 다음 정책을 승인했다. “강간 또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불필요한 죄의식을 자주 갖게 됩니다. 교회 역원들은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하며,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악행에 희생된 사람으로서 아무 죄도

없으므로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확신시켜 주고 대인 관계에서 자존심과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상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성적인 관계에 기꺼이 동의한 성인이라면 그 행동에 부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유발한 사람도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피해자일 뿐 전혀 죄가 없습니다.

“성폭행당한 어린 희생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책임지기에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린이의 명백한 동의에 따라 그런 행동이 저질러졌더라도 폭행자가 어린 희생자에게 힘 또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에는 그러한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어린이의 도덕적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총관리 역원, 지역 대표 및 기타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1985년 2월 7일)

### 도움을 받음 .....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며, 반드시 도움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즉시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친척, 상담가, 교사, 감독 등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아무도 그 사건을 그대로 넘겨서는 안된다.

성폭행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대부분 가해자는 피해자나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만일 사실이 알려지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협박한다. 그런 협박은 잘못된 것이며 누군가에게 그것을 빨리 알려야 한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가해자는 자신이 못된 짓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린다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길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들은 종종 그 범죄를 고발하면 가족 관계에 금이 가거나 가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만일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면 정부 기관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집에서 격리시킬 것이다. 또한 주위에 있는 전문 상담자가 가족을 도와 개인 및 가족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수 있다. 이들의 목적은 가족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합된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피해자는 감독이나 학교 상담자 또는 믿을 만한 성인이나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러한 상담 기법을 전공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 또한 경비가 문제되어서는 안된다.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재정 보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전문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다.

피해자는 또한 그런 범죄가 알려지면 자기 가족이 교회내에서 활동하기 어렵고 평판도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종종 우려한다. 그러나 가해자에게는 조치가 취해져서 그가 회개하게 하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회 선도의 목적은 (1)범법자의 영혼을 구하고 (2)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3)교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교회 지침서, 1989년 3월, 10-1쪽)

남자인 경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사회에서는 종종 남자란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그들은 자신의 남성다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한다.

피해자가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대신, 많은 피해자들은 그것을 고발하기 보다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며 자기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들은 또한 그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받기에 합당치 못한 불결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느끼지도 모른다. 일부 피해자들은 그런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그들에게 그런 관계는 정상적이며 자연스런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폭행을 고발하는 데 따르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고발되어야만 한다.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일 이들이 그 문제를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온갖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폭행과 관련된 경험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범죄, 침울한 증세, 혼음, 기피증, 친구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 자신감 상실 또는 장래 결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자녀에게까지 그러한 범죄가 연장될 수 있다.

“9개월 동안 저는 지역의 어느 모임에서 활동했는데 그 모임의 지도자가 십대 소녀들을 폭행했어요.”라고 샤론은 말한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그가 한 짓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모두 적혀 있어요. 상담을 통해 저는 그런 것을 제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 앞으로 나아가 .....

일단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는 그런 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중 한 단계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종종 그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첫번째 반응은 충격이다. 이것은 발생한 충격적인 상황이 너무 끔찍해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감각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 다음엔 거부 반응이 온다.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는 없어. 난 아냐. 우리 가족도 아냐.”

분노가 뒤따른다.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사람이 왜 그렇게 잔인할까?”

그 다음 맹세하거나 타협하게

된다. “만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그런 것을 잊어버릴텐데.” 또는 “내가 올바르게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게 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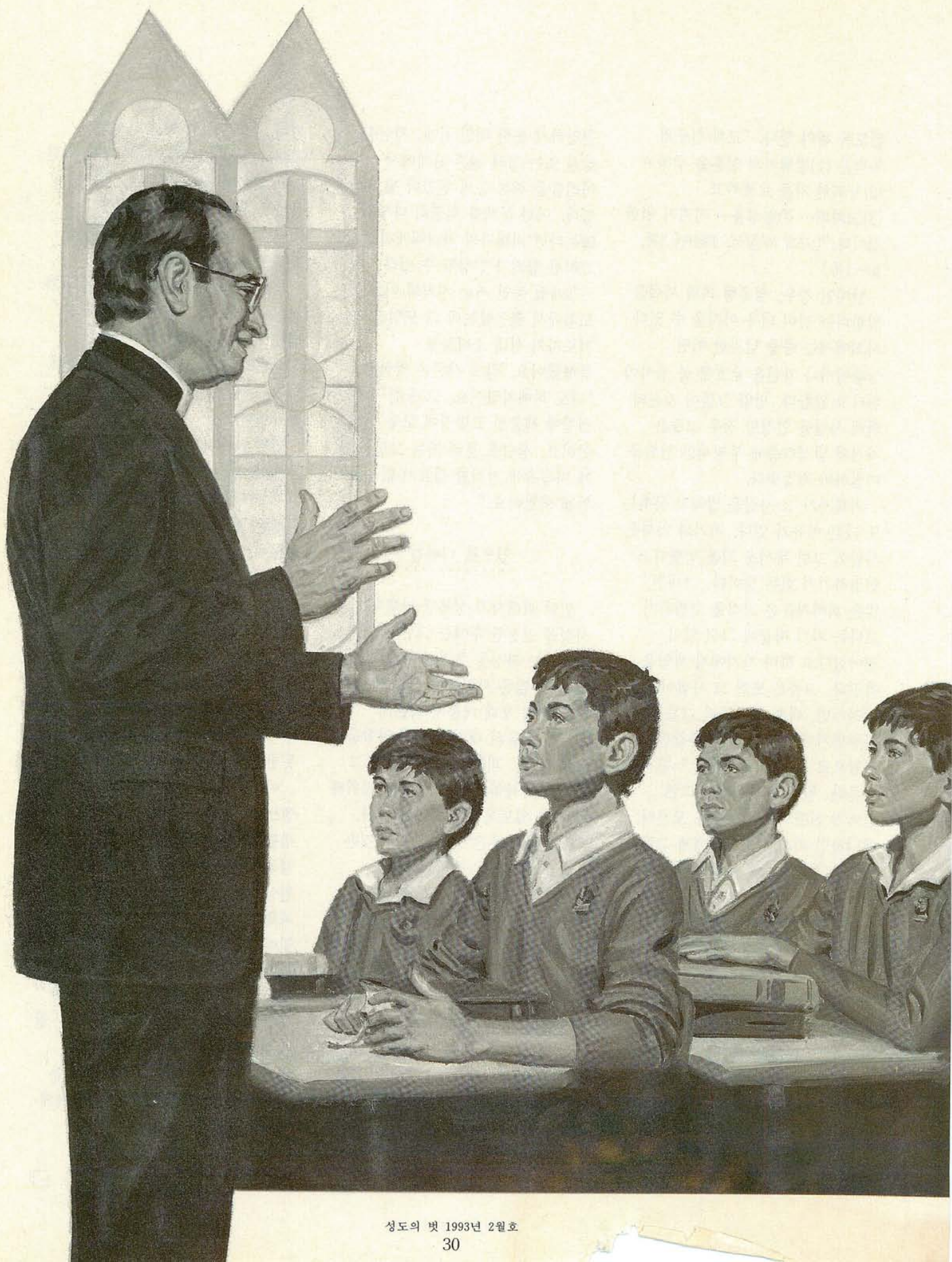
거부 반응이 없다면 침울한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나는 결코 다시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지는 못할 거야.”라며 피해자는 잘못 생각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치 없는 인간이야.”

만일 피해자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건 끔찍한 일이었어. 그러나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므로 내가 그것 때문에 영원히 파멸될 것까지는 없어.”

문제의 최종 해결책인 적응이 마지막 단계이다.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가치있게 여기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그 일은 과거의 일부가 되며 더이상 피해자의 생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앤드리어는 더욱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녀처럼 성폭행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도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그들이 피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에겐 아무 죄가 없으며 여전히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시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







# 성스런 대지에 서서

그레고리 엔시나 빌리코프

## 칠

레의 산티아고 성전 정원에  
섰을 때 나는 어린 소년 시절에 바로  
이 땅에 있던 카톨릭 학교에 다녔던  
일이 생각났다. 1970년 봄에 우리  
신부님은 우리 학교가 물론 교회에  
팔릴거라고 발표하셨다. “우리 칠레  
사람들은 천주 교회가 유일한  
종교라고 생각하지요.”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물론이죠. 또 다른 종교가  
있나요?”라고 생각했다.

신부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보고서를 쓰길  
바랍니다.”

말일성도 선교사 사무실은 우리  
집에서 단지 두 길 건너에  
있었으므로 나는 학교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그곳으로 갔다. 집에  
와서 나는 교회에 관해 쓰여진 예쁜  
소책자 몇 권과 몰몬경을 보았다. 그  
책 1면에는 모로나이의 특별한  
약속이 들어 있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서  
10:4~5)

이 약속을 읽었을 때, 나는 이  
말씀이 참되며 몰몬경이 참되다는  
영적인 증거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15살 소년으로 아직 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느낌에 따른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커졌으며 몰몬에 관한 보고서를 낸  
후 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다른 종교반에서 토론 모임을  
한 후에 나는 신회의 본질에 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영감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세 분의 각기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한 가지 같은 목적을  
갖고 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소중한 새로운 지식은 나중에 내가  
주님의 참된 교회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후 몇 년이 지나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해와서 내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다닐 때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다. 학교  
기숙사에서 나보다 아래층에 살던  
랜디는 나에게 몰몬경을 한 권  
주었다. 이 책은 내 방 한 구석에  
그대로 오랫동안 놓여져 있었다.  
랜디와 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의견이 달랐지만 그가 나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내용이 참되다고 증거하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는 집으로  
내려가기 위해 비행기 안에서 읽을  
책들을 가방에 꾸러넣기 시작했다.

책들을 가방에 넣다가 나는  
몰몬경을 보고서 그것을 제일 나중에  
넣으며 다른 책들을 다 읽은 다음  
그것을 읽어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나는 제일  
나중에 집어넣었던 몰몬경을 제일  
먼저 꺼내었으며 갑자기 그것을  
읽어야겠다는 큰 욕구를 느꼈다.  
몰몬경을 밤낮으로 다 읽는 데 4일이  
걸렸다. 나는 그것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알게 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대학교로  
돌아온 후 즉시 랜디에게 내가  
몰몬경의 말씀을 믿으며 침례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기뻐했으며, 장로들에게 연락하여  
곧바로 나는 침례받았다.

내가 소년 시절 카톨릭 종교반에  
다니던 당시, 장래 어느 날 바로 그  
땅에서 주님의 집인 칠레 산티아고  
성전에 참석하게 될 것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



# 신 앙 의 섬 피 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표현은 피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곳 회원들에게 영적인 아름다움을 더해 주어 이 낙원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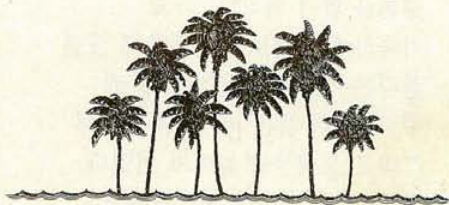
셜린 마이크 손더스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우신 날에 이 피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전에 태평양 지역 회장으로 봉사한 글렌 엘 러드 장로는 말한다. 여러분도 차를 타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비티 레부 섬을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달려본다면 이 말에 동감하게 될 것이다. 화산 봉우리들이 열대림과 잘 정돈된 사탕수수 농장 위로 솟아 있으며, 밖으로는 야자 나무들과 고운 모래 해변이 얽은 청색의

바다가 반짝거리는 만까지 이어져 있다.

그러나 이 낙원에서의 생활이 항상 단순하고 매력적인 것만은 아니다. 피지가 지닌 자연의 아름다움 뒤에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이 있으며, 이곳 사람들은 자국의 발전과 성장에서 오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과도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피지 국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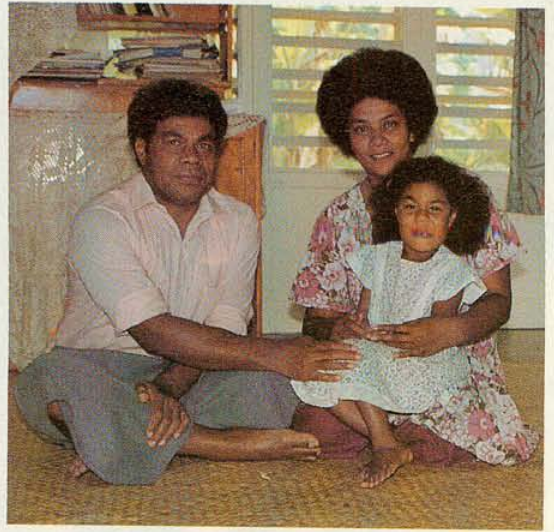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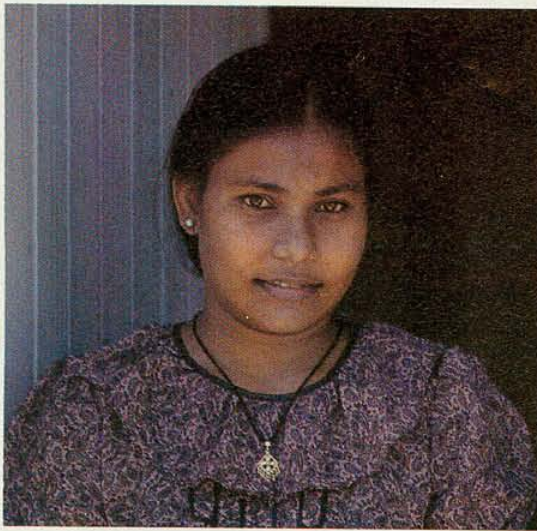
피지 수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아카니시 로시와 투포우투아 바리빌라라.  
약 7,000 명의 말일성도들이 이 섬나라에 살고 있다.











주요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복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이들이 시련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피지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약 1,77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삼백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백 개 정도의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그 중 13개의 섬에 밀집되어 있다.

교회 회원이었던 밀레 베아 애설리 자매가 자녀들을 데리고 통가에서 피지로 이주한 1924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으로 이곳에 발을 디뎠다. 그 후 사모아에서 소수의 다른 초기 회원들이 도착하였으나, 1954년 9월 5일이 되어서야 14명의 말일성도들이 수도인 수바시에서 정식으로 지부를 조직하고 임대 건물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작은 지부로 출발한 때로부터 39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이곳에 육천 육백 명의 회원과 여섯 개의 와드로 이루어진 한 개의 스테이크와(1983년에 조직), 열다섯 개의 지부로 이루어진 두 개의 지방부가 있다.

### 함께 모임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교통과 통신에 대한 문제가 회원들, 특히 수도인 수바 교외 지역과 비티 레부 섬의 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피지는 급여 수준이 낮은 관계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차를 살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편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1987년 말에 일어난 무혈 군사 혁명 이후에 새로운 피지

정부는 일요일 대중 교통 수단의 운영을 불법으로 선언하였다.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인 일반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각 마을에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말일성도들은 이들이 다니는 지부나 와드로부터 먼 곳에 살고 있다.

빌시 우쿠니바라비 부부와 여섯 자녀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집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나우소리에 예배당까지 걸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기도 했으며, 우리를 지나치면서 태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라고 우쿠니바라비 형제는 말한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정부가 전에 발표하였던 법률을 다소 완화하여 연중 일정 기간 동안은 일요일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다른 교통 수단이 아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이 이제는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으나, 버스 운행 시간이 맞지 않아 종종 교회에 늦게 도착하거나, 때로는 일찍 교회를 나서야 한다.

일부 와드나 지부에서는 개인 트럭을 임대하여 회원들을 교회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으나, 나디 와드의 터모치 라투 감독은 이런 방법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와드 예산보다 많은 돈을 교통비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각자 신앙을 통하여 교회까지 오도록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석율이 떨어졌으나 지금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라투 감독은 말한다.

교통 문제는 또한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행하는 회원들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집에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피지 수바 스테이크의 이노시 나가 스테이크



맨 왼쪽 : 시가토가 지부 회원인 브리마  
와티 사란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한 많은 피지 출신 선교사  
기운데 하나이다. 중앙 : 피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련과 난도 이에 속한다.  
왼쪽 : 막내딸 아케사, 아내  
레틀리아와 함께 있는 티모시 라투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저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부아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라이 쿠마리 자매는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매들에게는  
방문 교육 메시지를 타자로 쳐서 방문 교사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하고 있다. 지부의 신권 정원회  
지도자들은 특정한 마을에 가정 복음 교사들을 여러 조  
보내 그곳에 살고 있는 회원들을 한번에 모두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토가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시테리 바로  
자매는 가장 멀리 살고 있는 자매들을 보기 위해 매달  
버스를 타고 산골 마을로 가곤 한다. 바로 자매는 오전  
8시에 집을 떠나 정오에 집으로 돌아온다. “그곳에 머무를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타고 돌아오는 차가 막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떠나야만 합니다.”라고 바로 자매는 말한다.

수바시에 있는 회원들은 서로 가까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수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그레이스  
타이토 자매도 통신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도 타이토  
자매의 경우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민학교의 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나 이웃에 사는 아이들을  
통해 감독과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 피지인과 인도인

1878년에 피지를 다스리는 영국 총독부는 인도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5년 후에 인도인들은 자비를 들일 경우 귀국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만일 추가로 5년을 더 이곳에서 일한다면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총독부에서 지불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피지에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기로 하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카스트라는 인도의 계급 제도와는  
거리가 먼 피지 군도에서 살기로 선택하여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오늘날 피지 인구의 반 정도가 이들  
인도 출신 계약 노동자들의 후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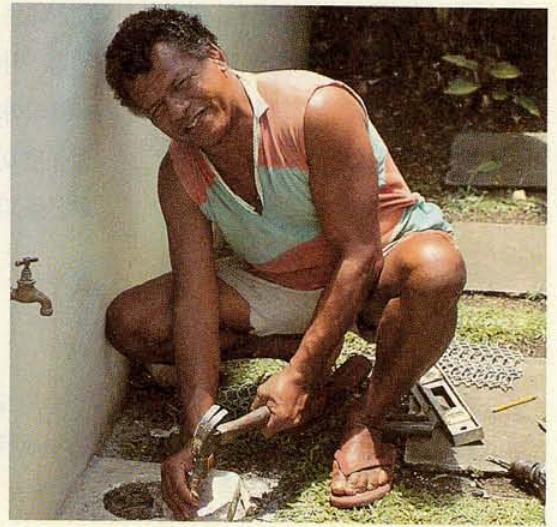
인도계 피지인들은 그들 조상의 문화적 전통을 대부분  
간직하여 왔는데 이 문화는 피지 원주민의 문화와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종교적  
관습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내에서 이들 두 집단을 서로 융화시키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해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1987년 10월, 피지 군부가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속해있는 정당 출신으로 새로 선출된 수상이 이끄는  
정부를 전복시켰다. 그 이후로 이 두 집단 사이의 반목이  
더욱 커졌다.

교회 회원들은 이러한 미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단합을 잘 이루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수바 스테이크 부장인 나가 형제는  
말한다. “군사 혁명 동안 우리는 회원들에게 교회를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일단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이상, 우리에게  
이방인이라 없다고 회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 회원들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하여 관심을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라투 감독은 교회내에서, 심지어는 새로운 회원들  
사이에게까지 그러한 긴장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 “저는 복음이  
사회적 신봉이나 종족, 믿음, 피부색 등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임을 하면서 인도인들 사이에  
피지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권고하는 것과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하도록 도와 주고 있다. 이 두 집단에 속한 교회 회원들은  
고등 평의회와 스테이크 또는 와드 보조 조직, 감독단과





위 왼쪽: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아홉살이었던 모우쉬미 사이는 바로  
한달 전에 라키라키 지부에서 침례를  
받았었다. 위 오른쪽: 농장

총관리인인 일리소니 킬리는 수도  
수바 근처의 라미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였다. 아래: 자신의 딸 아몰  
라시카(왼쪽)과 프라몰 라시카와 함께

있는 라 쿠마리. 이들은 마부아 지부  
회원들이다.





신권 정원희, 그리고 복음 선교사로서 서로 함께 도우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존중의 정신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토착 피지인인 바로 자매는 인도계 출신으로 자신의 제1보좌인 브리자 와티 자매에 대해 “저는 와티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상호부조회 일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사회를 보는 동안 제 아들을 봐주는 등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지도자들은 또한 모든 회원들이 교회 모임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배우도록 배려하고 있다. 피지의 공식어는 영어이지만,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연로한 회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토속어밖에는 모른다. 따라서 감독단과 지부장단은 종종 성찬식에서 세 사람의 연사가 말씀을 하도록 계획하기도 한다. 한 연사는 힌두어로, 다른 한 연사는 피지어로, 그리고 또다른 연사는 영어로 하는 것이다. 상호부조회와 신권 정원희에서도 종종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역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와드와 지부의 활동에서는 피지 음식과 인도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두 집단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돌기도 한다. 그러나 인도계 출신과 피지 토착민 출신의 말일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사회의 다른 곳에서 느끼는 것보다 서로에 대해 더욱 친근하고 서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 관습과 문화

피지 토착민들에게는 부족의 관습이 생활의 주요한 부분이다. 이 나라의 방방 곡곡에 피지인 마을이 흩어져 있으며, 각 마을에는 마을의 법률을 결정하는 촌장이 있다. 사실 선교사를 새로운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촌장의 허락을 받기 위해 전통 행사에 참여해야만 한다.

마을에서 사람들은 협동 교단과 비슷한 제도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촌장에게 바치며, 이에 대해 촌장은 음식과 의복과 주거지를 마련해 준다. 어떤 사람이 마을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들은 그의 모든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라투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얼마 전에 저의 가족들이 저에게 사생아로 태어나 아버지가 없는 친척 자녀들의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친척들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피지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들이 연로한 사람들과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평민들은 초대받지 않는 경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안된다. 또한 어떤 마을 사람이 다른 마을을 가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수바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인 알렉스 로벤단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러한 금기 사항들이 있다면, 이 마을에서 온 가족들이 저 마을에서 온 가족들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벤단 형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장벽을 깨뜨리고 어떤 문화라는 이름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만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우쿠니바라비 부부는 결혼을 하기 위해 문화적인 금기 사항을 어겨야 했다. 우쿠니바라비 자매는 피지의 상류 계급 출신이었으나 남편은 평민이었다. “구매 기간 동안 아내는 저와 아내가 지닌 사회적 신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앞으로 가지게 될 가정에 신권을 가져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니다.”라고 우쿠니바라비 형제는 말한다.

피지의 인도계 시민들 또한 강한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많은 인도계 부모들은 자녀들이 데이트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중매 결혼을 한다. 일단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시어머니 집에서 하녀 노릇을 하게 된다. 그녀가 그곳에서 사는 동안 시아버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결정권을 갖게 된다.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남편은



오른쪽 : 아내 로셀린, 아들  
아미트(왼쪽)와 아난드와 함께 있는  
수바시 다스 감독. 다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성전을 방문함으로써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맨 오른쪽 : 크리스틴 라사드 자매와  
발렌사 라사드 자매, 그리고 라그니

라타 자매는 복음에 따른 생활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습에 따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교회에  
가입하더라도 그의 아내는 교회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인도계 피지인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일부 인도계 교회 회원들은 가족들이 여러 세대 동안  
지녀왔던 믿음을 포기한 것으로 인해 배척을 당하고 있다.  
피지 수바 선교부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피터 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이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주님의 사업을 저해하는  
전통이라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 사랑과 친절 .....

피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장점의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제 생각에 그것은  
섬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알렉스 로벤단 형제는 말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이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가르침들입니다.”라고 피터 리 형제는 말한다.

리 형제의 부인인 세레아나 자매도 이에 동감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 제가 여분의 음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디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파우모로 아카타  
자매는 어떤 한 자매가 말일성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항상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고 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하루는 제가 자매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매님은 하얀 드레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을 사서 그  
자매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만들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라고 아카타  
자매는 말한다.

나디의 성도들은 또한 회원들이 통가에 있는  
누쿠알로파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통가까지 여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50달러  
정도이지만, 많은 가족들은 이 돈을 저축할 만한 여력이  
없다. 그래서 매년 회원들이 함께 지역 만찬회나 문화  
행사를 후원하여 돈을 모은 후에, 직업이 없거나 돈을  
저축할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이나 가족을 선정해 이들을  
8월에 있는 연례 성전 방문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피지 성도들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포근한  
성품들로 인해 좋은 회원 선교사가 되곤 한다. 와드나  
지부 회원들은 교회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세민시 라투 형제와 세레아나 라투  
자매는 자신들이 침례를 받은 다음 주에 선교사들에게 두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지금은 라투 형제의 다섯  
친구가 이미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서로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인사만 하더라도 그 집을 방문해 5분이나 1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라고 수바 나시누  
와드의 수바시 감독은 말한다.

### 피지 출신의 선교사들 .....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소망이  
복음 선교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피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105명의 선교사 중에는 38명의  
피지 출신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이 있다. 피지에서는 교회  
초창기부터 지역 출신의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1954년 5월에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가 피지에  
도착하였을 때, 이민국 관리들은 한번에 오직 두 명의  
선교사만이 입국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래서 필요한  
선교사 숫자의 나머지 부분은 지역 출신의 선교사들로  
충당되었다. 그후 미국인 선교사가 입국할 수 있는 숫자가  
점점 늘어 16명까지 되었으며, 1987년의 혁명 이후에는





위 왼쪽: 열 여섯 살난 산자니타 싱과 바 지부의 초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그녀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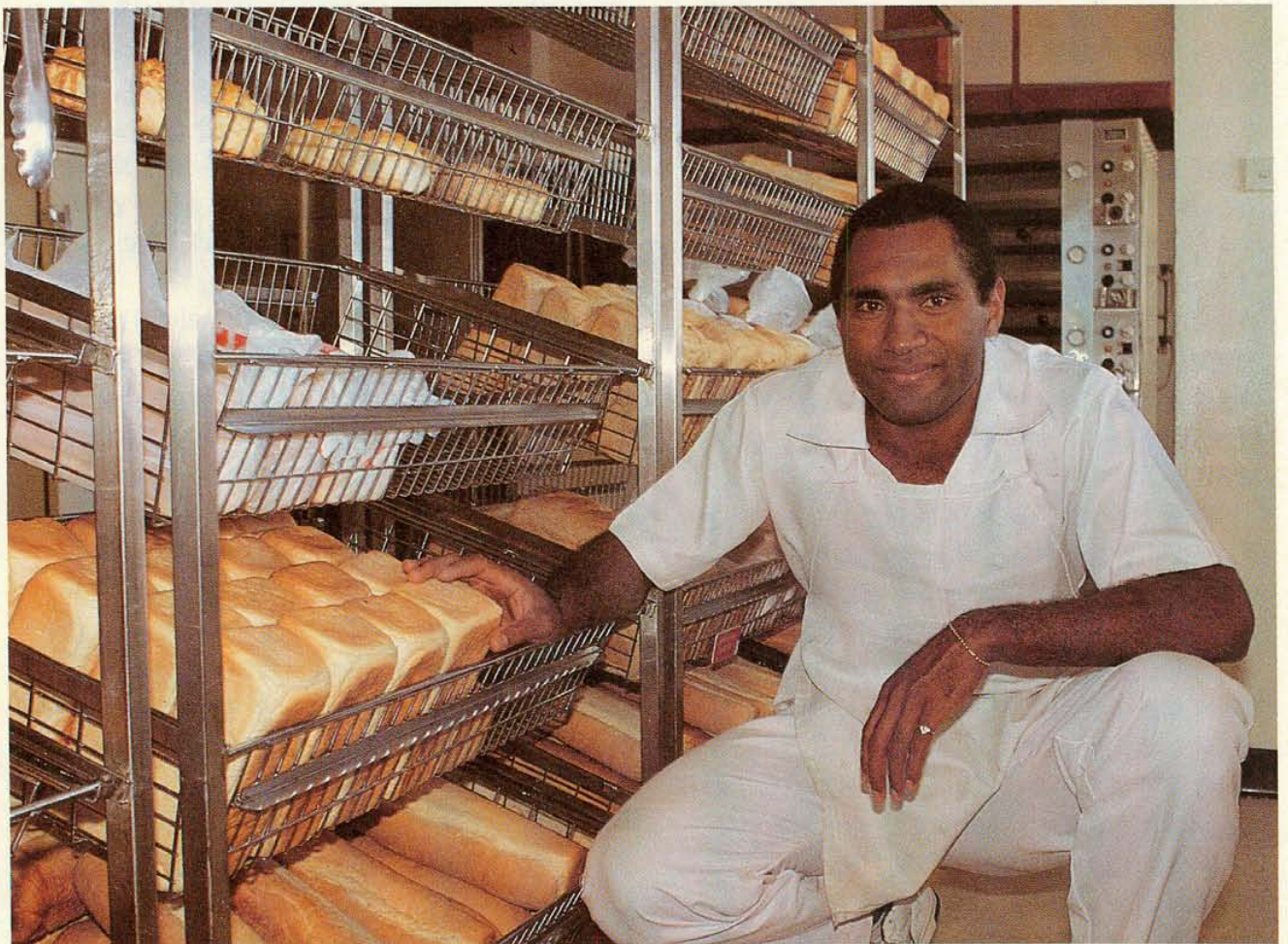
위 오른쪽: 바 지부 회원인 요베사 나우사가 사탕수수 농장 일을 하기

위해 황소에게 멩에를 씌우고 있다.

“저는 한걸음 한걸음 복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제가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아래: 바이오네 소로나바루는 제과 회사에서의 일자리를 그만두고 피지의 나디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한 제한이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지인들은 여전히 자국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소수의 인도계 피지인 선교사들이 인도로 부름받아 봉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언어 문제에 있다. 대부분의 피지인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데다가 피지 출신이 아닌 선교사들이 때때로 추상적이고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출신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 “우리 말로 복음을 가르치면 좀더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도자들과 우리의 느낌을 잘 나눌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구도자들이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라이시아사 베이코소 장로는 말한다.

나왈 센 장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피지에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계 출신인 센 장로는 자신이 인도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를 이용하여 인도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 6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단지 12명의 지역 출신 선교사들이 있었습시다만, 지금은 38명의 선교사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지역 출신 선교사들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1세대 회원들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갈 나이에 이르고 있는데, 또한 그들은 세미나리를 통해 복음 원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라고 나가 스테이크 부장은 말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선교사 프로그램이 피지의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귀환 선교사들이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환 선교사들이 활동적이며, 선교 사업을 통해 간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도력과 그들이 온

생애 동안 지녀야 할 선교 사업에 관한 책임을 다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타마부우아 와드의 조셉 소키아 감독은 말한다.

우쿠니바라비 형제와 자매는 선교 사업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생활과 자녀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다. “우리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특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또한 선교 사업을 통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교회는 우리 생활의 중심입니다. 만일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라고 우쿠니바라비 형제는 말한다.

“저는 해외에서 봉사하고 싶었지만 우리에게 이곳에서 봉사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선교 사업을 함으로써 제가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통하여 이곳 피지에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렉스 로벤단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많은 귀환 선교사들이 피지를 떠나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하와이 캠퍼스로 공부를 하러 가거나 다른 섬에서 온 말일성도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기회가 더 많은 나라로 직업을 얻기 위해 떠나고 있다.

## 신앙과 기적

피지의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는 강한 신앙을 지닌 겸손한 사람들이며, 이러한 신앙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도계 자매로 스물 한 살난 수니타 쿠마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했을 때, 그녀의 큰 오빠는 그녀를 결혼시켜 이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라키라키 지부의 회원들은 수니타 자매와 함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결국 결혼은 실행되지 않았으며, 그녀는 침례를 받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지부 회원들은 다시 수니타 자매와 함께 이번에는 그녀가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다. 그녀는 4년 전에 학업을 마친 이후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제 그녀는 “십일조를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주일 후에 수니타 자매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비서로 채용되었으며, 그 이후에 피지 수바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모나 던과 조오지 던이 라우토가 근처에 있는 자신들의 농장에 사탕수수를 재배하기로 결정한 해에 가뭄이 들었다. 여섯 주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던 부부와 그들이 곡식을 심기 위해 고용하였던 농장 관리인은 묘목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였다. 던 형제 부부와 이들의 아들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서 돌아와 보니 관리인이 “당신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방금 당신들의 사탕수수가 살만큼 충분한 비가 내렸습니다.”라고 말했다.

후일 그들의 물탱크가 거의 바닥나게 되자 던 부부는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다. 며칠 후 밤에 가족이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던 자매는 그것을 보고 “지금 비가 쏟아진다면 정말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비가 올거예요.”라고 남편이 대답했다.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폭우가 내려 물탱크가 차고 넘쳤으나, 그들의 집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젖지도 않았다.

수바시 다스와 로셀린 다스 부부와 이들의 아들인

아미트와 아난드는 성전을 방문하여 가족 인봉을 받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으나,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다스 형제는 감독으로 부름받고 나서 엔다우먼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통가까지 가는 비행기표 한 장 밖에 살 수 없었다. 다스 자매는 남편 혼자서 다녀오도록 격려를 해주었으나, 다스 형제는 “그럴 수는 없소, 우리는 모두 함께 가야만 되오.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이오.”라고 대답했다.

가족은 그 다음 두 주 동안 일요일에 금식을 하였다. 두번째 주가 끝나갈 무렵 다스 감독의 고용주가 그에게 네장의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다.

### 더 큰 즐거움이 없음

바 시가지 근교에 위치한 농업 지역인 베사루에는 조베사 나우사가 만 이천 평이나 되는 사탕수수 농장을 가꾸며 살고 있다. 그는 장로로서 바 지부에 다니고 있으며,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저는 매년 농장에서 250톤에서 270톤에 이르는 많은 양의 사탕수수를 수확하곤 했습니다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지난해보다 적은 양의 사탕수수를 수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나우사 형제의 이러한 느낌은 피지에 있는 말일성도들의 느낌을 대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 폰차이 준트라티프

영적으로 준비됨

데이비드 미첼

**폰** 차이 준트라티프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한 손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폰차이는 웃으며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숙여 “사와르 디 크랩”하고 태국의 전통적인 인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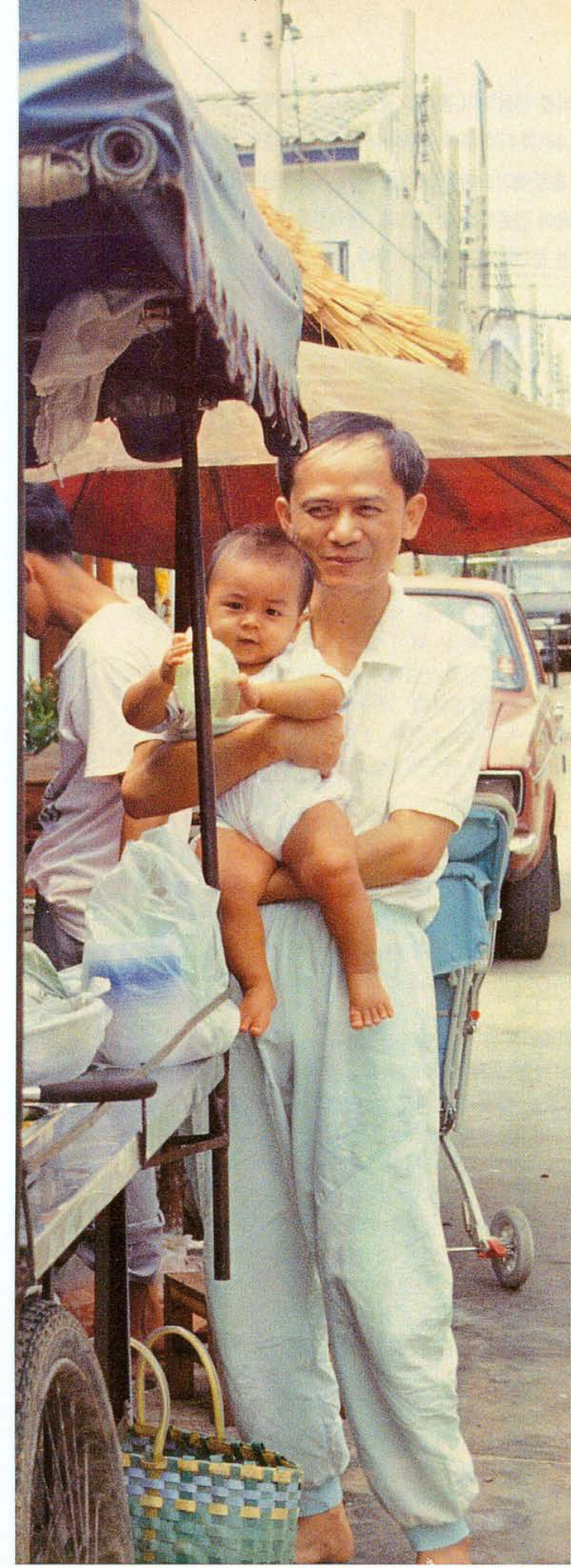
준트라티프 형제는 가냘프고 섬세해 보이는 사람으로 46세인 그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였다. 이 집을 찾아온 손님은 준트라티프 형제에게서 경건한 품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세상에 때묻지 않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다. 태국 방콕 태생으로 교회 번역사로서 일하고 있는 준트라티프 형제는 십대 시절에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여 왔다.

“여덟 살인가 아홉 살 때에 저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쌍안경을 쳐다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저의 왼쪽 눈만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열네 살 때에 왼쪽 눈마저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는 밝고 어두운 정도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준트라티프 형제는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잃은 후에 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 왔다.

“저는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말일성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저의 집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는 자전거를 세우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저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들 피투폰을 안은 폰차이 준트라티프가 음식을 파는 수레 옆에 서있다. 이 음식점은 아내인 준트라티프 자매(왼쪽)가 운영하는 것으로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팔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폰차이 준트라티프 형제는 태국에서 세미나리와 대학부 학생들이 사용할 자료들을 번역하고 있다. 그는 솔트레이크에서 보내준 영어 녹음 테이프를 듣고 이를 번역하여 컴퓨터에 입력한다. 맨오른쪽 위: 아들 피투폰과 함께한 준트라티프 형제와 자매.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선교사들은 저에게 요셉 스미스와 첫번째 시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요셉 스미스가 선한 사람이며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제의에 따라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선교사들이 저에게 전해준 말들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일어섰을 때, 저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로들은 다시 올 날짜를 정했으며, 이번에는 영문 점자로 된 몰몬경과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쓴 신앙개조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폰차이는 자신이 그 당시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은행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폰차이가 아홉살 때에 그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열 살 때에는 가정 교사를 두어 영어 공부를 시켰다. 그리고 후일 폰차이는 맹인을 위하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4년제 고등학교 통신 과정에 등록하였다. 그는 과정을 이수하여 선교사들이 멈추어 자신에게 말을 걸어 오기 얼마전에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준트라티프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준 책을 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종교의 관습을 지켜보면서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불교도로 양육되었으나, 중국인의 후손이었던 저의 부모님께서는 설날 의식과 조상에 대한 의식 등과 같은 중국의 종교적 관습을 지키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으며, 오래전 어린 시절에 십계나 성의 같은 주님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훌륭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계시야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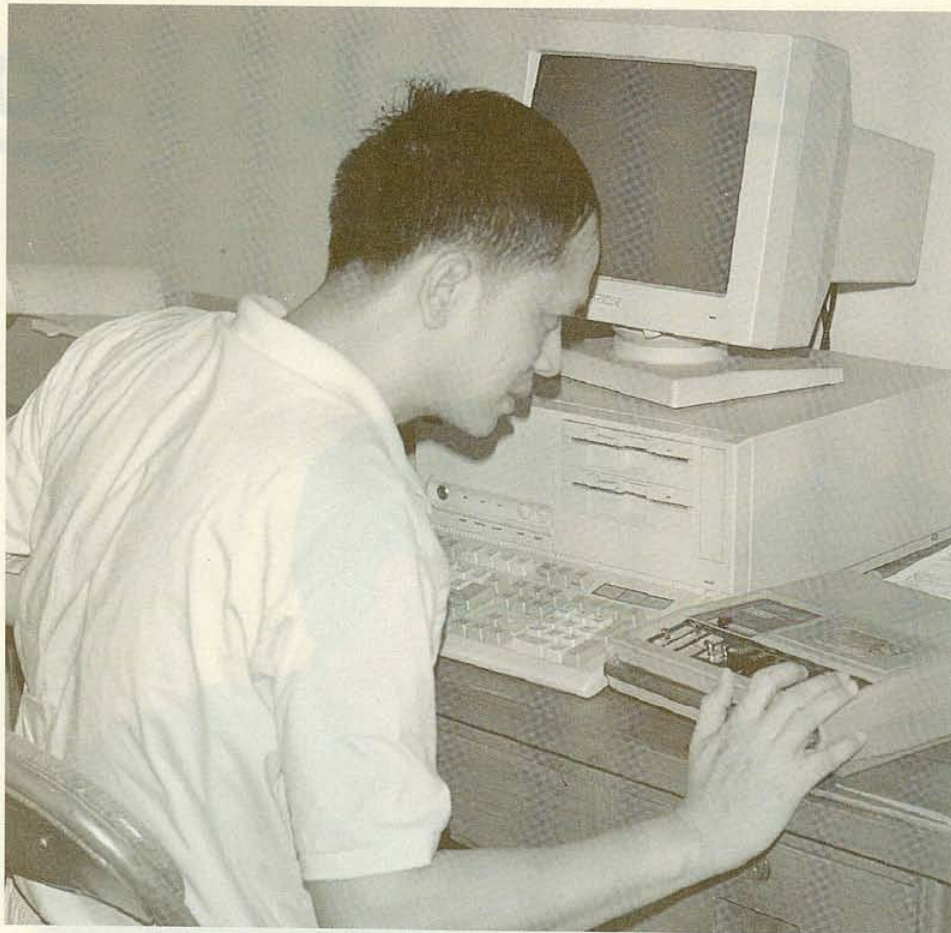
준트라티프 형제는 1976년 12월 6일에 스물 여덟 살의 나이로 침례를 받았다.

그 당시에 이미 부모님께서서는 돌아가셨지만 준트라티프 형제는 두 동생의 반대에 부딪혔다. “동생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기술자였으며,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물질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동생들은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 입학하려는 준트라티프 형제의 결심을 다시 반대하였다. “동생들은 제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저를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난처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준트라티프 형제는 당시를 회고한다. 형의 계획을 저지시키기 위해 동생들은 어머니께서 형에게 남겨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용하였다. 준트라티프 형제는 재산을 처분하여 학비를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동생들은 자신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형이 실패하는 경우에 이를 처분하여 형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준트라티프 형제는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여 하와이 브리감 영 대학교에 등록을 하였다. 항공 회사에 편지를 써서 비행기 값을 반 값으로 하여줄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았더니, 항공사측에서는 무료로 비행기표를 제공하겠다는 답장을 보내 주었다. 폰차이는 대학에서





강의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또한 녹음된 교재를 들으면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한편 이야기 역사 테이프를 베껴쓰는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1983년 12월에 졸업을 한 그는 영문학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로 전학하였다. “하와이에서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동생들이 태국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유타주까지의 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시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썼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 시간이 없었지만, 다행히도 저는 장학금을 받게 되어 1986년 6월에 석사 학위를 받고 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준트라티프 형제는 말한다.

태국으로 돌아와서 7개월 동안 준트라티프 형제는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교회 번역사로 일하게 되었다.

“저는 저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다는 기도를 해왔었는데, 번역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 교재와 신학 연구원 대학부 교재를 태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준트라티프 형제는 자신에게 영어 원문을 읽어줄 사람을 고용했었다. 그가 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녹음하면 녹음 테이프를 다시 글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뒷 부분의 두 작업은 준트라티프 형제가 타자기의 사용법을 배움으로써 없어졌다. 나중에는 타자기를 컴퓨터로 바꾸었는데 이로써 원고의 수정과 교정이 더욱 편하게 되었다. 더우기 준트라티프 형제는 현재 영문 원고 대신에 같은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받아 이를 번역하고 있다.

준트라티프 형제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돌아온 지 몇 년 뒤에 아내인 크완자이를 만났는데, 그녀는 태국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사였다.

준트라티프 부부는 1990년 6월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 예전에 크완자이 자매의 선교부장이었던 플로이드 호간 성전장의 손으로 부부 인봉을 받았으며, 1991년 8월에 아들 피투폰이 태어났다. “아들의 이름은 축복사의 축복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성장하여 아내같이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준트라티프 형제는 말한다.

“저는 선교사들이 저에게 토론을 가르칠 때, 그들이 가르친 복음의 메시지가 참되고 훌륭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기억합니다. 복음에 따라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저는 복음이 훌륭한 것이며 참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준트라티프 형제는 말한다. □



# 배우자의

멜빈 엘 프루이트





# 행복

어느 결혼 관계에서든 각 배우자는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거나 또는 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젊은 남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 중이었다면 그 여성이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까지 남편을 가차없이 나무랐습니다. 그녀는 말과 행동으로 남편에게 그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그가

쓸모없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둘 다 이지적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언행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여성에게 “무엇을 얻고 싶으신 것입니까?”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남편을 비난함으로써 남편이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돌연히 자신이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의 행동은 남편으로 하여금 그녀를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구애 기간 동안 그가 얼마나 열렬했으며 또 그의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간에 계속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언젠가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식어버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우리의 사랑은 말다툼 몇 번 했다고 약해지진 않아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처는 낫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낫는다 해도 그 자리에 흉터가 남으며, 흉터 자리가 많을수록 사랑이 커질 자리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우하는 방식에 대응하는 데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일 냉장고 손잡이를 만질 때마다 심한 전기 충격을 받으며 이러한 상태가 매일같이 여러 달 동안 계속되면 여러분은 그 냉장고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냉장고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혐오감마저 느낄 것입니다.

이는 한때 사랑했으나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부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 해에 걸친 그런 종류의 학대를 견디면서 어떻게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감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나는 당신의 기분이 어떠한 상관없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메트 라이어 사진





나부 성전 건축, 게리 이 스미스 작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이 성전 건축자인 윌리엄 워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요셉이 순교당한 후에 성도들은





**태** 평양 제도 국가인 피지가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아름다운  
꽃들속에 수련이 피어 있다. 그러나  
복음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름다움을 주어 이  
천국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신앙의  
섬 피지”, 32쪽 참조